

아프리카TV vs 치지직... 토종 스트리밍 플랫폼 '2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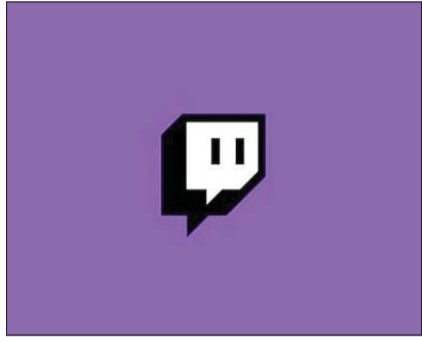
트위치 철수 '빈자리 쟁탈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빈자리를 두고 국내 토종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치지직은 빠르게 이용자 유입에 나서며 국내 스트리밍(개인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치지직은 출시 3개월만에 아프리카TV 이용자수를 근소하게 앞서며 양자구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의 '치지직'이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00만명을 돌파했다. 치지직은 네이버가 지난해 12월 베타서비스로 시작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치지직의 지난달 MAU는 208만3306명으로 전월(166만2847명)보다 약 42만명 증가했다. 서비스를 출시한 지난해 12월(130만3659명)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78만명 증가한 셈이다.

아프리카TV의 지난달 MAU는 약 253만명으로 전월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만명 중반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셈이다.

양사의 하루 이용자수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위치 로고.

치지직 지난달 MAU 200만명 돌파 스트리머에 총 50억 지원 프로젝트

아프리카TV 지난달 MAU 253만명 상반기 신규 플랫폼 '숲' 베타출시

증권가 "2개사 수익모델 확보 성장 기대... 매수 기회로 추천"

이달 1일 기준 치지직의 하루 이용자 수(DAU)는 91만1733명, 아프리카TV는 90만6018명으로 치지직이 근소하게 앞섰다. 다만, 지난 3일 기준 아프리카TV의 DAU는 95만5269명, 치지직은 87만5055명으로 아프리카 TV가 치지직을 다시 제쳤다.

이처럼 국내 토종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성장한데는 트위치의 이용자를

대거 유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트위치가 지난 27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이용자들이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 기존 트위치의 DAU는 80만명을 넘어섰지만 철수 일주일 이후 30만명 가량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네이버 치지직과 아프리카TV는 트위치의 빈자리를 꿰차기 위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치지직은 스트리머 성장을 돕기 위해 총 50억원의 콘텐츠 창작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파트너 스트리머 대상으로 20억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스트리머 굿즈 제작 지원과 네이버 내 프로모션, 스트리머 참여 이벤트 개최 등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아프리카TV 브랜드 이미지를 탈바꿈한다. 신규 스트리밍 플랫폼인 '숲'을 올해 상반기 베타서비스 형태로 출시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진행자를 뜻하는 'BJ'와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 등의 명칭도 변경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두 회사의 경쟁이 과열된 만큼 시청자 수도 업치락 뒤치락 중이다.

지난주 아프리카TV의 최고 시청자 수는 34만9387명을 기록했다. 반면 갈

은 기간 치지직의 최고 시청자 수는 22만1012명으로 파악되면서 양 플랫폼 격차는 15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다만 치지직도 가파르게 뒤쫓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치지직의 최고 시청자 수는 8.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 시청자 수도 7.3% 증가한 8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아프리카TV의 최고 시청자 수는 7.0% 줄었고 평균 시청자 수도 1.4% 감소한 14만175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권가도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트위치 빈자리를 아프리카TV와 네이버(NEVER)의 치지직이 채우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신규 수익모델 확보를 통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모바일인덱스에서 공개한 일간 이용자 수를 보면 아프리카TV의 안드로이드 기준 일간순이용자(DAU)는 평균 40만명대에서 50만명대로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하며 출시 초반 20만명대에서 현재 40만명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처리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43% 증가 '역대 최대실적'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물류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한국 인천, 평택, 군산 등 서해안의 각 항구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공사는 지난 2023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만 88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화물의 출발지는 99.6%가 중국이며,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이 주요한 화물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어깨·손목에 무리 없고 디자인 커스텀까지

韓 키보드 시장, 연 7.5% 성장... '마니아'까지 등장

숫자패드 없는 '텐키리스' 숫자패드만 있는 '키패드' 키보드에 포인트 주는 '키캡' 등 관련 상품·부품등 '인기'

'키보드'가 PC 주변기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성능과 손목 건강은 물론 '디자인'까지 사로잡았다.

키보드의 형태도 다양해 졌지만 관련 부품들도 인기다. 어깨 건강을 생각해 숫자패드가 없는 '텐키리스'를 선택한 사람을 위한 숫자패드만 있는 '키패드', 특정 키의 강조와 미묘한 키보드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키캡', 키보드의 위생과 깔끔함을 위한 '키보드 덮개'까지 다양한 키보드 관련 상품들도 각광받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키보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키보드 마니아들까지 등장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키보드 시장은 49억 달러(6조 3700억원) 규모로 2028년까지 1.74% 성장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기업인 애플에 따르면 국내 키보드 시장은 2014년 468억 원에서 2018년 624억 원으로 연 평균 7.5% 성장해 지난해 900억 원 수준에 이르렀다. 글로벌 시장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키보드 마니아들의 키보드 구매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다. 텐키리스 키보드의 경우 숫자패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타자를 칠 때 손가락에 힘



해위 유저가 공개한 키보드 진열장의 모습. 그는 기계식 키보드의 팬이다. /reddit user barrettcreative

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리니어 타입 키보드는 손가락 관절이 약하거나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리니어 타입이란 스위치(키)에 관한 용어 중 하나로, 클릭(청축·녹축·백축)/년클릭(갈축·회축)/리니어(적축·흑축) 등으로 나뉜다.

이세영씨는 회사에서도 지급해주는 비품 키보드가 아닌 개인 키보드를 사용 중이다. 이씨는 "이전에 쓰던 제품은 5만원 정도의 황축 키보드였는데, 업무 중 손가락이 너무 아파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구입했다"며 "적축 키보드는 타건했을 때 걸리는 느낌이 없고 소음이 적어 회사에서 사용하기에 좋지만, 황축은 다소 키압이 높아 손가락에 무리가 간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키보드 마니아인 최태희씨는 "특히 게임하는 사람들이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키캡을 바꾼다는



관절 건강과 인테리어, e커머스 스포츠의 인기 키보드 시장의 성장까지 끌어냈다. /핀키스

지, 키보드를 커스텀하는 재미도 있고 각 축마다 타건감이 다르다 보니 여러 키보드를 써보고 싶어 마니아가 됐다"고 설명했다.

키보드 시장의 성장은 온라인쇼핑 시장과 스마트팩토리의 발전 등 PC 업무 시간의 확대와 함께 e스포츠의 인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e스포츠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최초 게이밍 기어 브랜드 스틸 시리즈는 현재 진행중인 '2024 WDG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e스포츠 선수 중 52%가 에이펙스 프로 시리즈 게이밍 키보드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키보드 영역에서 스틸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를 절반 이상인 52%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회 출전 선수 52%의 키보드 점유는 에이펙스 프로 TKL 28%, 에이펙스 프로 미니 24%이다.

현재 스틸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미니 키보드를 사용 중인 농심 레드포스 발로란트 팀 소속 'Yohan'(본명 배요한) 선수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에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작은 사이즈까지 원하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켜줘 스틸 시리즈 제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타건감도 좋은 제품을 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이펙스 프로 미니 키보드만 사용하고 있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즉각적으로 체감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키보드에 대한 마니아들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인테리어 앱 '오늘의집'에서 현재 판매 중인 키보드의 수는 3274개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인테리어 요소로서의 감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건감으로 불리는 키보드 테스트 매장도 등장했다. 여러 종류의 키보드를 나열하고 하나하나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용산에 위치한 타건샵의 수는 최소 6곳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애플, 유럽서 또 '백기' 앱스토어 독점정책 철회

유럽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유럽 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전용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간) 공식 공지를 통해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해 EU 사용자들은 iOS 17.4 이상 업데이트 이후 다른 앱마켓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27개 EU 회원국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변경사항은 EU 국가에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앱 다운로드를 위해 앱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애플이 지난 2008년 이후 16년째 고수해온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포기한 것은 유럽에서 DMA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DMA는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선정하고 DMA를 적용했다.

DMA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김재용 기자 juk@